

순창,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

지난 22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열려

순창군이 지난 22일부터 3일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에게 열린 홍보전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했다.

박람회기간 동안 심포지엄, 컨퍼런스, 정책설명회 등 농업 분야와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농업 분야의 장밋빛 미래를 예견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순창군도 한 칸에 부스를 마련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에게 순창군만의 강점을 호소하며 귀농인 유치에 열을 올렸다. 3일간 열

린 이번 박람회에 중장년층을 비롯 청년층까지 100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군은 예비귀농인들에게 확실한 농도장을 짰다.

상담을 받은 도시민 대다수가 군의 귀농정책에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정책과 민·관협력 지원 그리고 정착인과 청년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주거정책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현재 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미리 순창지역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며, 귀농에 필요한 토지부터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해 운영중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종의 임시기

주지로, 체재형 실습농장과 귀농의 마을 그리고 농촌주택을 리모델링한 귀농의 집을 구축했다. 여기에 2박3일 동안 무료숙박이 가능한 게스트 하우스 등도 함께 운영한다. 이외에도 출생 장려금 과 육아용품 지원, 중3~고3까지 매년 200명씩 방과 후 학습지원과 고2학생에게 해외 문화탐방비 지원,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만 39세까지 결혼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도시청년유치를 위하여 올 하반기부터 8억4천여 만 원을 들여 청년실습농장을 조성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컨설팅지원, 재능청년에게는 창업정착지원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순창군의 주역인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2020년 임실군 관내 우수 적응 품종' 선발

군농기센터, 고추품종 비교시험포 운영

임실군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추 품종을 선발한다.

군은 임실고추 생산자연협회와 연계해 오는 12월에 '2020년 임실군 관내 우수 적응 품종'을 선발하기로 했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지역농업실증시험포에서 지역적응 우수 품종 선발을 위해 임실고추 생산자연협회와 공동으로 고추품종 비교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다.

고추품종 비교시험포는 다른 지역의 고추 농가, 단체를 대상으로 견학을 진행하며 다른 지역의 고추 재배 및

동향 등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며 선진지 견학 장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초 33품종을 선정해 5월에 정식을 실시하고, 생육기간 동안 병해충 발생정도, 수확과의 과중, 과장, 과폭, 수확량 등을 측정한다 바 있다.

측정한 데이터와 품종별 특성을 꼼꼼히 분석해 우수품종을 선정하게 된다.

선발된 품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새해 영농 실용화 교육을 통해 임실군 고추 농가의 도움을 줄 예

정이다. 또한, 품종별 매운맛(신미도) 분석을 통해 고춧가루의 매운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임실고추농산물가공 판매장에서 일괄 구매, 가공되면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돼 임실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홍성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추 품종의 수가 많아 농가들이 지역에 적합한 고추 품종을 선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매년 진행되는 고추품종 비교시험포 운영을 통해 관내 고추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트래블아이어워즈 특산품부문 4년 연속 최우수지자체 선정

순창군이 최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열린 '2019 제5회 트래블아이어워즈'에서 4년 연속 특산품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트래블아이어워즈 시상식은 문화마케팅연구소에서 주최하고 트래블아이와 트래블투데이가 주관해 이날 총 9개 부문, 26곳의 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는 지난 1년간 지역관광 정보 제공에 대한 지역기관의 참여도, 트래블피플 관여도 등의 활성화 수준을 산출한 지역호감도(국내 유일

관광지표 특허)를 바탕으로 1차 정량평가를 거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2차 정성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행사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장에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관광상품과 마케팅 활성화 등 관광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의 자리도 가졌다.

현재 순창군은 명인들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전통 고추장이 대표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퓨전장류인 토마토발효고추장, 커피에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커피 등도 순창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끌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군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전통적인 특산품인 고추장외에도 발효커피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적극 발굴해 순창군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지역의 대표관광명소인 광한루원에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춘하추동 남원을 다시 보다

광한루원에 비경사진 28점 등 역사성 불거리 전시

남원시는 지역의 대표관광명소인 광한루원에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광한루원 전시실인 춘향관에는 광한루원과 지리산 등의 남원 비경사진 28점으로 춘하추동 남원을 다시 볼 수 있으며, 광한루원에 전해지는 유명한 선현들의 한시(20점)를 번역해 계절, 일상에서 접하지 못한 광한루원만의 스토리와 옛 정서를 느끼고 문화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크린에 비친 광한루원이라는 주제로 영화 및 드라마 포스터 25점을 전시하고, 상시 춘향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며 광한루원이 유명 촬영지로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관아정원으로서의

최고 관광명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명승 제33호인 광한루원은 삼도도순찰사 정인지가 남원부 순찰 중에 광통루에 이르러 "호남의 승경으로 달나라에 있는 궁전 광한청허지부(廣寒淸虛之府)가 바로 이곳이 아니던가" 하면서 누각의 이름을 광한루로 바꿨다.

한편 남원시는 전국 최고의 전통축제인 춘향제를 매년 5월이면 개최되는데 내년이면 무려 90회가 개최되며, 앞으로 광한루원과 선현들의 전해오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전시해 광한루 600년 가치를 공유하고 역사문화학습의 관광명소로 가꾸어 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현수막 지정계시대 확충

불법현수막 게시 사전 예방

남원시 건축과는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통한 불법 현수막 게시 요인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지정계시대(30개)를 12월 말까지 확충 설치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에 해당 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고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계시대 외에 설치한 대부분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률에 맞지 않는 불법이다.

현재 남원지역에는 119개의 현수막 지정계시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수막 게시 수요를 소화하지 못해 가로수, 가로등 기둥, 담장 등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이번 현수막 지정계시대 확충을 통해 광고주의 지침을 위한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미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시민들로 하여금 지정계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등으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힘써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보건소 국립곡성치유의 숲 업무협약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지난 22일 보건교육실에서 국립 곡성치유의 숲 과 치매관련 지원 발굴 및 치매관리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치매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립 곡성치유의 숲은 전남 곡성군 동악산 자락의 신기리 청계동 계곡 일대에 조성되면서 숲바람, 폭포 등 다양한 산림환경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순례 남원시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보다 체계적인 숲 산림치유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관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활성화로 효율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금과면 매우마을 LPG 본격 공급

순창군이 최근 금과 매우마을 LPG배관 사업을 완료하고 50세대에 LPG가스가 본격 공급됐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마을 중심부에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지하 배관을 통해 LPG를 도시가스처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금과면 매우마을이 선정되어 6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최근 완공했다.

또한, 마을주민이 사업비의 5%만 부담하면 가스보일러 설치, 가전내 배관망까지 설치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으로 기존에는 연료가 떨어지면 일일이 가스를 배달시켜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됐으며, 특히 매우 마을주민들이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을 꼽는다. 이뿐 아니라 등유나 개별 LPG 이용할 때와 비교해 약 30만원 이상 연료비가 절감돼 경제적 부담도 덜었다.

황숙주 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해 더욱 저렴하게 난방과 취사용 LPG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지역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